

아세안의 중국 딜레마 – 경제적 파트너인 동시에 지역 안정에 위협적 존재인 중국

이 글은 *The Diplomat* 2019년 10월 29일자에 Trinh Le가 쓴 “ASEAN’s China Dilemma : China remains both an economic partner and a threat to the stability of the region”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2019년 11월 3일 태국 방콕에서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시작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에서 약 3,000명의 관리와 언론인이 참석할 것이다. 정상회의가 지역 및 국제회의로서 갖는 역할은 중요하다.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전개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가 회담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중국의 한 석유탐사선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두 공산국가 간 3개월의 대치 상황을 유발했으며, 미국이 중국 정부에게 “깡패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의 중국 선박 ‘하이양 디즈(Haiyang Dizhi) 호’는 10월 24일 베트남 수역을 벗어났지만, 그 불법 활동이 베트남 및 여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국가들에 미치는 파장은 막대할 것이다.

중국이 최근 자체 조성한 인공섬들을 물류 허브로 활용해 중국 선박들이 가장 가까운 하이난(海南)섬 해상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이번 사례가 마지막 사례는 아닐 것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상 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적 자세를 상대함에 있어 훨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리란 것을 시사한다.



방콕의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가한 아세안 10개국 대표자들

드림웍스(DreamWorks)의 만화영화 속 한 장면에 그 악명 높은 ‘9단선’(nine-dash line :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해상 경계선 → 3쪽 지도 참고)이 등장했다는 폭로가 나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 영화는 애초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접근방식은 동남아시아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국가들로부터 불신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협력과 평화적 논의를 입에 올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자국의 방침을 무조건 밀어 부친다.

최근 몇 년간 아세안은 지역 문제와 국제 문제의 연관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해 왔다. 올해 정상회의 주제 중 하나는 ‘동반자 관계(partnership)’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동반자 관계 속에서 아세안 중심의 지역구조를 강화하고, “균형과 민생복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중요한 국제적 이슈들에 대처함에 있어 아세안의 역할을 제고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중국 정부와 여타 영유권 주장 국가들 간 남중국해 분쟁이 미해결인 가운데, 아세안에게는 여전히 경제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지역 안정의 위협적 존재로 남아 있다. 사실 현재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중국을 아세안 10개국 연합의 “가장 중요한 대화상대국”이며, 중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는 “역내 가장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화는 점차 위협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은 맹렬한 속도로 증강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 수륙양용함, 신형 핵잠수함 및 재래식 잠수함 취항, 그리고 “대형화되고 성능이 향상된 항모전단의 소문은 역내 경쟁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디펜스 커넥트(Defense Connect)는 보도했다. 지난 10년 간 중국은 100여 척의 전함을 건조하고 고도의 성능을 갖춘 수상전투함정과 잠수함 숫자를 늘리는 등,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앞질러 왔다.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은 이들 함정과 잠수함으로 무장되어 있다. 중국은 또한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 장비를 설치해 왔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해상 통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신흥 초강대국으로서 지역적 야심을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개의 단선으로 표시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토 범위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적으로 아세안의 영유권 주장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 영토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정치, 안보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역내 군사 활동과 해군 주둔을 강화해 왔다. 2017년 5월 이래, 미국의 역내 항행자유작전(FONOP) 수행은 여섯 차례에 이른다. 또한 일본은 분쟁 수역에서의 중국의 적극적 활동에 대응해 베트남과 필리핀이 안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함정과 군사장비를 판매했다.

중국은 직접적인 억제력을 사용하는 대신, 아세안과의 해상 행위수칙(code of conduct)을 더욱 진척시키고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들을 강요해 중국 정부와의 합동탐사 계획에 끌어들이 공산이 있다. 이럴 경우 아세안은 중국의 ‘각개격파’ 전략에 맞서 통일된, 강력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된다.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행위수칙 협상은 이제 1라운드를 막 마친 상태며, 앞으로 두 번의 라운드는 더 거쳐야 끝날 것이다.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과정으로, 아세안의 결속은 그 기간 내내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무역과 관련해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지도자들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알려진, 16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고조되고 있는 무역 긴장과 지속적인 민족주의 감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에는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은 제외되어 있다. 런던의 킹스 칼리지 국제관계학 교수 하쉬 판트(Harsh Pant)에 따르면, 아세안이 두 경제 초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 대결이 커지면서 아세안이 받는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니다. 중국을 경제 동반자로, 그리고 미국을 안보 동반자로 두고 있다는 전통적인 위안은 이제 더 이상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판트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실 아세안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인 중국의 급격한 위상 변화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역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혜택과 동시에 이웃 강대국으로부터의 엄청난 해상 위협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다. ▣